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CULTURE FOR ALL

GYEONGNAM MECENAT 2012

메세나(Mecenat)는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말하며 고대 로마 제국시대에 문화예술인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데 앞장서 로마문화 번영에 큰 역할을 했던 재상 마에케나스(Maecenas)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바다를 거닐다

이광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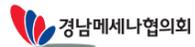
니에게 다가가면
함께 거닐고 싶다
너와 마주치면
어깨를 안아주고 싶다
너의 가슴에 어둠이 내리면
곁에 눕고 싶다
비보다 먼저 제 몸을 적시는
바다는 언제나 맨살의 자유형이다
바다의 꿈 바다의 노래는
바다가 사는 존재의 물음표다
밤바다에 다시 와 보면 답이 있다
바다가 꽃으로 피워낸 외딴섬처럼
스스로 뱃길을 낮추는 까닭을 해명한다
오늘밤 잠을 설친 파도자락
한 마리 새가 되어 너를 향해 난다

이광석

59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청마문학상, 시민불교문화상, 경남언론문화연구소 대표, 시집 『겨울나무들』, 『집초가 어찌 낮을 두려워하라』, 『바다 변주곡』 등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보라

사람 관계에서든
인생에서든
한걸음 물러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
삶의 또 다른 지혜입니다.



발행인 | 박영빈

편집인 | 박덕운

발행일 | 2012. 08. 31

발행처 | 경남메세나협의회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1-5 경남은행 3층

전화 | 055-285-5611

팩스 | 055-285-5610

홈페이지 | www.gnmecenat.or.kr

기획 · 디자인 | 아트인시티 Tel 055-262-2116

GYEONGNAM MECENAT CONTENTS

경남메세나 소식지 2012 Vol.013

08

LETTER : 메세나협의회 소식 | 결연식 스케치
2012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

12

LETTER : 메세나협의회 소식 | 홍보대사 위촉
초대 홍보대사 지휘자 금난새



14

LETTER : 메세나협의회 소식 | 경남메세나 포럼
경남메세나포럼 IN 함양

16

LETTER :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01
센트랄과 함께하는 창원국악관현악단

18

LETTER :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02
기분좋은 만남 미즈맘 여성병원

20

LETTER :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03
STX 행복한 문화나들이

22

LETTER :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04
경남은행 창립 42주년
KNB Art Gallery 개관

26

HUMAN : 동행 | 회원사대표 인터뷰
(주)고구려 대표 임채현

28

HUMAN : 예술인 | 예술단체대표 인터뷰
극단 객석과 무대 대표 문종근



30

HUMAN : 경남예술, 한국을 넘어 세계로
2012 문자문명 북경전

34

HUMAN : 경남예술, 한국을 넘어 세계로
함양 다별청소년관악단
유럽 순회공연

36

CULTURE : 예술과 삶
시조시인 노산 이은상



40

CULTURE : 예술기행
마산 창동예술촌



44

CULTURE : 문화산책 | 공연 전시 프리뷰
오페라 춘향전
이상근 국제음악제

48

CULTURE : 문화산책 | 공연 전시 프리뷰
인산가곡제, 김달진문학제

49

CULTURE : 문화나눔
찾아가는 메세나, 나눔티켓

50

결연기업 및 예술단체 현황

51

경남메세나협의회 사업소개

변덕스런 하늘이 말갈게 걷힌 7월 5일 저녁

로비에는 아르카 챔버 오케스트라의 현악 4중주가 감미롭게 흐르고 있다.

경남은행 본점 아트갤러리에서는 경남메세나협회의 2012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과 지휘자 금난새의 홍보대사 위촉식이 함께 열렸다.



2012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 & 홍보대사 위촉식

WELCOME TO GYEONGNAM MECENAT

“영원한 메세나 동행자로 만난 자리, 우리는 하늘 아래 하나다.”

기업과 문화예술단체, 지역민들의 긴 목마름에
경남메세나가 ‘결연’ 이라는 단비를 내려주었다.
우리들은 그 단비를 어떻게 잘 사용해야할지 고민해야 한다.

지난해 60개 팀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67개 팀의 메세나 결연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자리. 섬세하고 애절한 몸짓으로 참석자들의 마음을 빼앗은 밀양 김금희 무용단의 ‘교방 굿거리 춤’ 축하공연에 이어진 본 행사에서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과 지휘자 금년새 홍보대사 위촉식이 함께 열렸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

박영빈 경남메세나협의회 회장은 “경남메세나가 창립 5주년을 맞아 기업과 예술의 디딤돌이 돼 경남에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고 있다”고 말한 뒤, 지휘자 금년새의 아버지이자 작곡가인 금수현의 가곡 ‘그네’를 열창하여 갈채를 받았다. 아마 이런 일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이지 아닐까 싶다. 이어 박 회장은 “더 나아가 창립 당시의 역동성으로 재도약하여 2015년에는 400개 회원사와 120개 결연 팀을 달성해 성공적인 메세나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하며 경남메세나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김두관 도지사를 대신한 윤상기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물심양면의 협조와 지원을 약속하는 축사를, 고영진 경남도 교육감은 “문은 열려 있어야 문이다. 닫혀 있으면 벽이다. 기업후원은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살피우는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정충건 경남신문사 회장은 금년새 홍보대사가 경남 메세나의 발전 동력이 될 것이라며 홍보대사에 대한 기대를 한껏 드러냈다.

금년새 경남메세나 초대 홍보대사 위촉식

경남메세나 초대홍보대사로 위촉된 지휘자 금년새는 색색으로 날리

는 축하 종이비행기를 바라보며 “큰 무대에서 지휘할 때도 떨지 않는 데 이 순간만큼은 무척 떨린다. ‘강남’ 메세나를 넘어, 이 지역의 무한한 발전을 넘어, 세계 메세나로 발돋움하도록 힘을 기울이겠다.”는 소감과 초대홍보대사로서의 각오를 다졌다. 그는 창원대학교 석좌교수로서 음악인재 양성에 힘쓸 뿐 아니라, 마사회 기금으로 농촌문화재단을 만들어 음악을 접하기 어려운 시골 청소년들을 위해 악기를 보급하고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활동하며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군단위 지역에 20개의 청소년 오케스트라 ‘키도’가 있다.

문화에 대한 긴 목마름에 결연이라는 단비를 내리다

『대기업 결연단체 10곳, 중소기업 결연단체 57곳, 총 67개 팀 결연...』 이는 우리 경남 기업과 문화예술단체의 행복지수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한국메세나가 작년에 이룬 실적과 맞먹는 훌륭한 성과이다. 마음에서 우러나 스스로 즐겁게 하는 일이라 모두 행복하고, 그 행복 바이러스가 번져나갈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제 이 지역에서 메세나를 모르면, 문화예술단체를 후원하는 메세나 활동을 망설이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고들 한다.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메세나, 문화예술 사회공헌 이런 단어들, 우리 사회의 문화공용어가 되었다고 야단이다. 기업과 문화예술단체, 지역민들의 긴 목마름에 경남메세나가 ‘결연’ 이라는 단비를 내려주었다. 우리들은 그 단비를 어떻게 잘 사용해야할지 고민해야 한다.

“영원한 메세나 동행자로 만난 자리, 우리는 하늘 아래 하나다.”

이날 오고 간 건배사 중 하나다. 경남메세나협회로 하나 된 기업과 문화예술, 지역민들의 영원한 만남을 위해 건배~!



01 기업과 예술단체간 결연의 상징인 스카프 교환
02 금년새 경남메세나 초대 홍보대사 위촉장 수여
03 진주비빔밥과 오미자 와인이 준비된 만찬

Interview:

일림나노텍 박호찬 회장

4년째 예술단체와 결연을 맺고 있다. 매칭펀드를 통해 예술단체도 지원하고, 직원들 또한 공연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다. 경남관악단 덕에 생산직의 딱딱함을 날릴 수 있게 되었다.

김해신포니에타 이견덕 대표

올해 설립 12주년 된 단체다. 메세나와의 인연은 2007년부터다. 올해는 함양 인산죽염촌과 신규 결연을 맺었다. 다가오는 9월 1일 함양상림숲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기업과 예술단체들이 결연하여 더 넓고 활발한 행사로 자주 교류하고, 메세나가 경남문화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하기 바란다.

경원벵텍 이명세 상무

기업문화지원에 관심이 많아 결연 전부터 장유여성합창단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로 많이 알게 되고 기업문화를 향상시켜주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쁘다. 회사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오늘, 자유분방한 진행이 참 좋다.

따뜻한 사람 지휘자 금난새

경남메세나협의회 초대 홍보대사 위촉
Honorary Ambassador Gum Nanse

2012 경남메세나협의회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에서 초대 홍보대사로 위촉된 금난새 지휘자는 "경남 18개 시·군의 문화기업인들과 힘을 합쳐, 앞으로 경남 문화예술이 더욱 번성해서 메세나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세계적인 지휘자이자 청중과의 유쾌한 소통으로 이름난 지휘자 금난새. 오늘은 그를 경남 메세나 홍보대사로 만났다. 살짝 더운 인터뷰 공간으로 인해 연신 땀이 흘렀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인터뷰이를 만나는 설렘과 긴장 탓이리라. 몇 마디가 오가는 사이 그의 따뜻한 말투와 수줍은 미소에 긴장이 풀려갔다. 마치 여러 번 만난 듯한 편안함. 그것이 금난새가 오랜 시간 대중들로부터 사랑받는 이유라는 것을 알았다.

경남에서 메세나의 희망을 그리다

"제도권 오케스트라인 인천시향과 민간 오케스트라인 유라시아 필하모닉도 운영해 봤습니다. 제도권 오케스트라는 예산이 보장돼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이지만, 이후 창의적이고 대중에 다가가려는 부분에 대한 정열은 부족합니다. 반면 민간 오케스트라는 적극적인 마케팅과 창의적인 연주 없이는 생존 자체가 어렵습니다. 예술가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과 가치를 발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 지원을 '구호품' 정도로 여기기도 안됩니다. 메세나가 기업이 문화예술 지원을 통한 사회 환원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예술 수준 또한 기업이 추구하는 이미지와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 또한 역지로 내는 기부금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지역민이자 고객들과 행복을 나누는 사업이고 또 이것이 회사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문화정책이라는 생각으로 발전돼야 합니다."며 기업과 예술인들의 수준 높은 노력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중앙무대와 세계무대에서 활동한 그는 경남지역의 메세나 활동이 활발한데 대해 놀랐다고 한다.

지역 특성상 기업이 많고, GDP가 높은 수준이기에 메세나가 더 활발하게 요구될 수 있고, 그러기에 경남메세나가 우리나라 최고의 메세나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한 하라며 경남 지역 활동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었다.

금난새 뮤직페스티벌 &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경남 도민이 그를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7월 하순 경, 창원대학교와 함께하는 음악축제를 준비 중이라 했다. 금난새 뮤직페스티벌 & 오케스트라 아카데미가 그것이다. 그는 이 행사를 금난새만의 일, 창원대만의 일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프로젝트로 여긴다. 콘서트마다 직접 설명하고 지휘하며 경남의 청중들과 소통하며 경남을 새로운 클래식 명소로 만들겠다고 한다. 청중이 원하는 음악을 연주하고, 음악으로 인한 소통을 중요시 여기기에 그는 연주회 마다 저마다 다른 특별한 커튼콜로 청중을 감동시키는 세계적인 지휘자를, 여름 날 밤마다 만날 수 있겠다... 벌써부터 흥분 된다. 인천시립교향악단과 민간벤처 유라시아 오케스트라, 뿐만 아니라 전국 20개의 청소년오케스트라 등의 활동으로 메세나적인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었던 그는 음악교육의 새로운 지표를 만들고 싶어, 메세나적인 노하우를 경남지역을 위해 펼쳐보고 싶어 경남을 선택했다. 사람의 인연이란 것이 어찌 한마디 말로 표현 되겠는가 마는 '제법인연생(諸法因緣生: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은 모두 인연에 따라서 생긴다)' 이라는 말처럼 금난새와 경남과의 인연도 아마 그러할 것이다. 지난해 60개 팀에서 7팀 늘어난 67개 팀이 결연이라는 창립 이래 최대결연을 이끌어낸 경남메세나협의회 '상반기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 과 한국 최고의 지역 메세나를 자부하는 경남메세나와 금난새의 만남이 만들어 낸 '인연생기(因緣生起: 연이 되어 결과를 일으키는 법)' 를 기대하는 이유다.



천년
숲의

비밀을
간직한

선비의
고장

함양
으로 떠나다

봄이 사뿐사뿐 다가오던 4월의 어느 날,
메세나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경남메세나포럼'이 선비의 고장 함양에서 열렸다.
답답한 회의실이 아닌 연초록 새싹이 움트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어
울리면서 겨우내 움츠려있던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준 특별한 시간이었다.

함양에서 함께한 경남메세나포럼



몸에 좋은 소금을 만나다

첫 여행지는 산속 깊이 고요히 자리한 죽염의 명가 '인산가'였다. 죽염을 이용
해 각종 병을 치료한 명약이자 독립운동가인 인산 김일훈 선생의 차남인 김윤
세 회장을 만나 건강 특강을 들었다. 우리는 보통 짜게 먹는 것이 나쁘다고 알
고 있지만, 자연에서 얻은 질 좋은 소금은 사람의 몸에 꼭 필요하고, 조금 짜게
먹어도 상관없다는 했다. 먹는 사람의 체질이나 입맛에 따라 소금의 양은 자
동으로 조절하면 된다는 것. 강의내용은 유익했다. 특히 자연의 섭리와 우주의
원리를 따라야 좋은 의학이라는 말은 오래 가슴에 맴돌았다. 현대의 대체의학
이 자연치유능력을 강조하는 것을 자주 접한다. 그런 점에서 독성이 제거된 죽
염을 이용하여 각종 병을 치료하고 자연의 치유능력을 굳게 믿고 있는 김윤세
회장의 남다른 철학이 느껴졌다.



선비의 골목을 함께 걷다

인산가를 떠나, 100여 채의 한옥들이 남아있는 고가마을인 개평한옥마을을 찾았다. 흔히 일두 고택, 혹은 정여창 고택마을이라고 불린다. 일두
정여창은 성리학의 대가로 개평마을에서 태어나 자랐다. 우리는 가장 먼저 개평마을의 대표 격인 일두 정여창 고택을 둘러보았다. 얼마 전 영화
'건축학 개론'이 인기를 끌었다. 건축을 하는 사람들에게겐 필수답사코스가 바로 정여창 고택이다. 솟을대문(홍살문)을 지나면 모양의 사랑채
가 나오는데 바로 앞에 있는 소나무가 독특하다. 그 소나무는 사랑채를 향해 절을 하듯이 자리있다. 웬지 소나무가 사랑채의 주인이었던 일두 선
생을 그리워하는 것 같다. 나무도 생각이 있어서 높은 담이 있는 곳으로는 스스로 가지를 뺀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 물론 모든 나무들
이 그렇진 않겠지만, 어떤 특별한 나무들은 그럴 것 같다. 시간이 멈춘 듯한 한옥마을에서 경남메세나 가족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사진을 찍거나
담소를 즐기며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일두 정여창 고택은 생각보다 많은 볼거리를 감추고 있다. 사랑채를 지나 안채로 들어서면 두
껍이 닫힌 우물이 하나 보인다. 사람들은 두껍을 열어보고 그 아득한 깊이에 놀란다. 개평마을이 배 모양이라, 배에 구멍을 파면 배가 가라앉는
다고 더 많은 우물을 파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우물이 다섯 개면 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지곡초등학교가 생긴
후 일본인 고장이 마을에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고 한다. 실제로 일두 정여창 고택도 우물을 판 후 가세가 기울어졌다는 일설도 있다. 메세나 가
족들은 우물을 사이에 두고 사진을 찍었다. 마루에 앉거나 서거나 모두들 자유롭게 편한 모습이었다.

천 년의 상림 숲에서 음악을 듣다

마지막 여행지는 상림 숲이었다. 상림 숲은 인공 숲으로 통일신라 진성여왕 때 최치원 선생이 함양읍의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었다고 전해
진다. 마산에도 월영대, 돌섬 등 여기저기 최치원 선생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많다. 함양상림은 사람의 힘으로 조성한 숲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숲이다. 역사적 가치와 함께 우리 선조들이 홍수의 피해로부터 농경지와 마을을 보호한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숲에 도착하자마자
메세나 가족들은 숲길 산책을 나섰다. 나무들은 이름표를 매달고 우리를 반겨주었다. 갈참나무, 졸참나무, 개서어나무... 평소 알지 못하던 나무들
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예전에 달력에 꼭 등장하곤 했던 상림 숲의 가을이 생각났다. 이른 새벽에 찍은 듯 했던, 그 사진은 발
갈게 물든 나무들과 바닥에 가득 쌓여있던 낙엽들로 장관이었다. 누가 찍은 사진인지 그 사진만 보면 상림 숲에 와보고 싶어지곤 했다.
숲을 한 바퀴 돌고 나자 어디선가 음악소리가 들려온다. 메세나 결연단체인 함양 '다별 청소년 관악단'이 환영의 의미로 작은 숲속 음악회를 준
비했다고 한다. 흰 와이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은 학생들이 악기 하나씩을 들고 무대 위에 서 있었다. 어떤 학생은 자신의 몸 보다 큰 악기를 들고
있었는데, 그 진지한 모습이 귀여웠다. 작은 군 단위의 청소년 관악단이지만, 유럽순회공연을 계획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요즘 청소
년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심각하다. '다별 청소년 관악단'은 문화적으로도 정서적이고 건강한 청소년문화를 가꾸고 있다. 메세나 가족들은 여
행에서 뜻밖의 행운을 만나듯 즐거운 마음으로 연주회를 감상했다. 음악회와 더불어 숲 속에 해가 지고,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며 집으로 돌
이갈 준비를 했다. 함양에서 만난 태고의 시간과 행복한 만남은 빠듯한 일상에서 한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 줄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인 국악을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음악이라고 치부하는 이들 가운데, 기실은 국악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국악공연을 경험한 사람들은 국악이 얼마나 흥겨운 음악인지 또, 얼마나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대단한 음악인지 안다. (주)센트랄 사원들은 제대로 된 국악공연을 관람하면서 국악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다.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선입견을 거부하라

26년 전통의 창원 국악관현악단과 40년 넘게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에 힘써온 (주)센트랄이 신규메세나 결연을 맺었다. 전통 국악기와 관현악의 적절한 조화는 음악에 문외한마저도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있다. 그래서였을까? 평소 우리 문화와 전통에 대한 애착이 컸던 센트랄 강태룡 회장의 뜻에 따라 우리 전통음악의 조화를 추구하는 창원 국악관현악단과 (주)센트랄이 메세나결연을 맺은 것이다.

우리 전통의 소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센트랄을 적셨다. 시나브로, 우리 전통음악과 우리 민족의 자존심은 그렇게 전승되고 있었던 것이다.

2012년 6월 26일, 3.15 아트센터 대극장에서는 센트랄 사원가족이 함께한 가운데 센트랄과 창원 국악관현악단의 만남을 기념하는 '천년의 소리로 변화를 시작하다' 공연이 열렸다. 특별한 관심이 아니면 마주하기 쉽지 않은 국악 공연, 하지만 창원국악관현악단은 전통문화의 독창성과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현대의 정서와 감각에 맞게 작품성을 살려 무대에 올렸다. 그들은 천년을 이어 온 소리로 이 시대의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공연장은 어느 유명 아이돌 공연장도 이만큼 할까 싶을 만큼 뜨겁게 달아올랐다. 현란한 야광봉은 없지만 공연에 대한 열기와 환호가 넘쳐 연주자들도 절로 신명이 나는 무대였다. 이날 강태룡 회장이 "서울에서도 공연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수준 높은 공연과 관객의 호응은 처음이다. 정말 다시 보고 싶은 공연"이라며 "공연기획을 한 번 더하자"고 할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

보은(報恩)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직원과 협력업체 가족들을 우선 공연에 초대했다. 그들에게 문화생활을 통한 삶의 여유를 제공하고, 그들이 있기까지 헌신한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한 공연이기 때문.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꽉 찬 3.15 아트센터 대극장. 창원국악관현악단이 준비한 창작 국악가요와 원장현류 대금산조 협주곡, 팔도민요와 모듬타악에 관객들은 밤새 공연하자며 환호했다. 하긴 누가 이런 음악에 환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랜 시간 동안 나의 핏줄 속에 스며있는 우리 선조들의 얼이 깃든 음악인 것을..

"깊은 새벽녘에 잠들어 있는 또 다른 나를 깨우는 울림의 소리를 느꼈다." "전통음악 공연이 외국에서 방문한 고객마저 흘러버렸다. 한국인임이 자랑스러웠다." "분명 지루할거라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목을 빼고 듣고 있었다." 는 직원. "아빠가 다니는 회사가 자랑스럽다." 는 아이. 우리 전통의 소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센트랄을 적셨다. 시나브로, 우리 전통음악과 우리 민족의 자존심은 그렇게 전승되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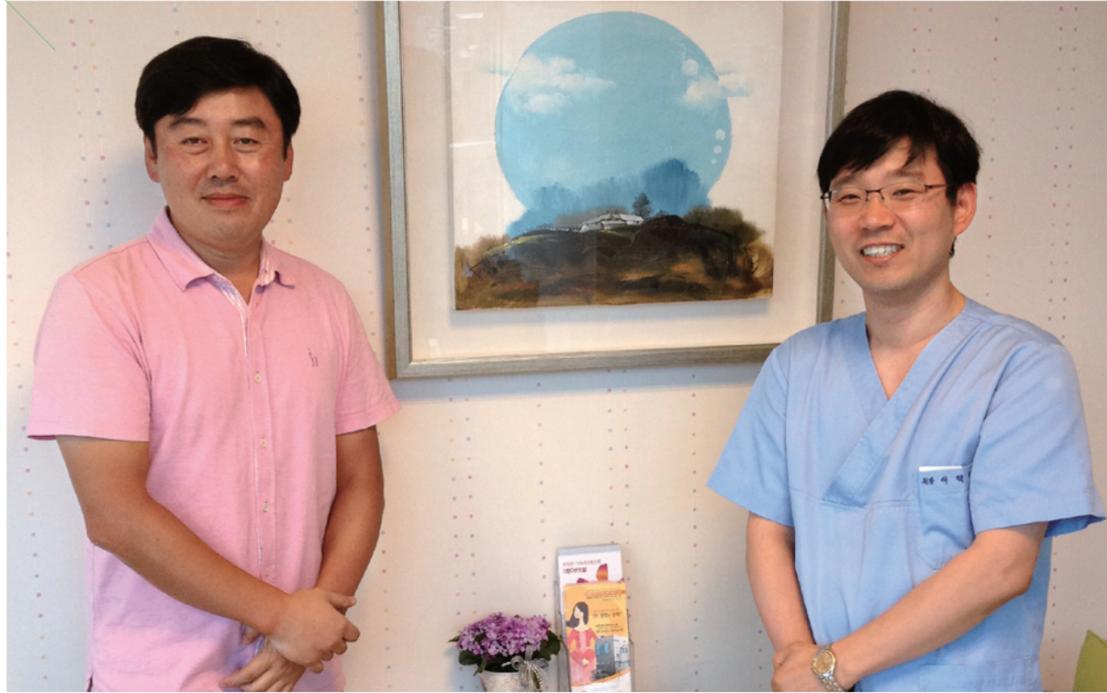
'상생' 과 '동반성장'을 통한 발전이 회사의 성장이라 믿으며 지역의 자람이 되는 기업,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 회사가 지향하는 '상생협력'의 가치를 실천해갈 동반자를 만났다는 것이 기쁘다는 (주)센트랄과 메세나 활동을 통해 예술의 창의성과 품격이 기업 경영에 스며들도록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다짐하는 창원 국악관현악단의 기본 좋은 만남.

문화예술의 가치를 알고 예술단체가 더 좋은 작품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기업, 이런 기업의 마음을 아는 예술단체의 만남. 이것이 메세나의 존재의 이유다.

CENTRAL & CHANGWON GUGAK ORCHESTRA

센트랄과 함께하는
창원국악관현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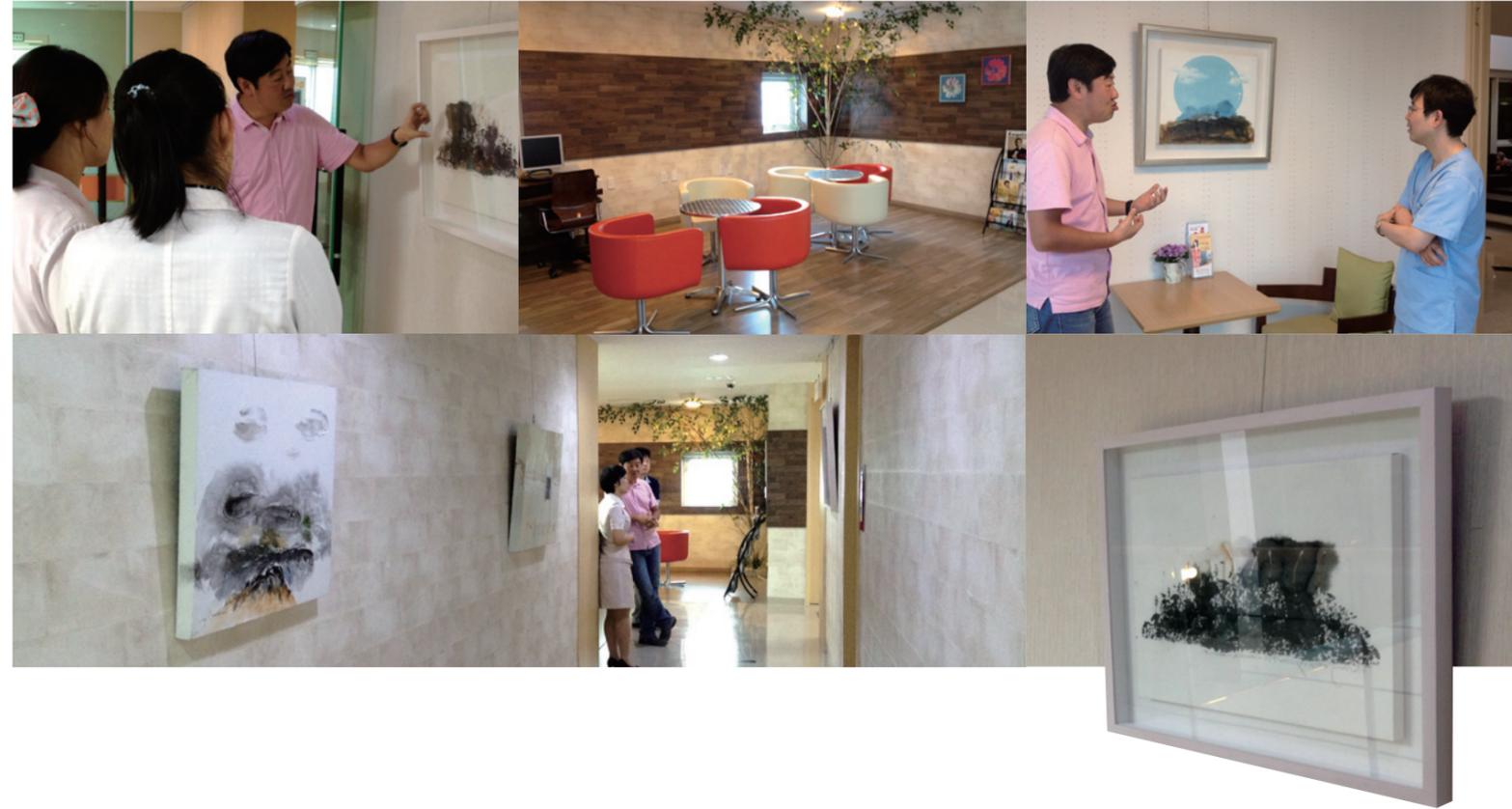




미즈맘 여성병원에는 위안을 주는 그림들이 있다? 있다! 그건 바로 병원 곳곳에 마련된 편안한 휴식공간과 층층이 벽면에 걸려있는 그림들이다. 흔히 보는 고호의 해바라기 같은 모조품이 아니라 작가의 개성과 열정이 느껴지는 예술작품들이다. 올해 2월 개원하여 차별화된 병원시설과 쾌적한 환경, 우수한 의료진과 함께 산모와 가족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고의 여성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창원 봉곡동 미즈맘 여성병원을 찾았다.

MIZMAM WOMEN HOSPITAL & GALLERY

기분좋은 만남
미즈맘여성병원



미즈맘 여성병원 GALLERY

미즈맘 여성병원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병원 곳곳에 마련된 편안한 휴식공간과 층층이 벽면에 걸려있는 그림들이다. 이 작품들은 올해 미즈맘 여성병원과 메세나 결연을 맺은 창원미술협회 회원들의 작품들이다. 이덕희 대표원장은 병원을 개원하면서 어떻게 하면 병원이라는 공간이 산모와 가족들에게 딱딱하고 무거운 곳이 아닌, 편안한 쉼터처럼 느껴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우연히 창원미술협회가 주최하는 성산미술대전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한다. 25년 역사를 가진 전국 규모의 미술대전이 열악하게 치러지는 것을 보고 이 원장은 파트너가 되자고 먼저 손을 내밀었고, 성산미술대전을 지원하게 되었다. 따스한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올해 성산대전에서는 미즈맘 특별상이 제정되어 5명의 작가들에게 상을 수여했다. 작가들은 병원을 그림이 있는 아름다운 문화공간으로 꾸며주고, 일 년에 두 번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해주기로 했다. 산모와 가족들은 그림을 보며 위안을 얻는다며 만족하고 있다.

“미즈맘 여성병원에는 위안을 주는 그림들이 있다”

함께 Win-Win 하는 기분 좋은 만남이죠

인터뷰 현장에 창원미술협회 이경태 회장이 함께 하여 병원을 돌며 그림 해설을 해주었다. 동행한 직원들은 매일 그림들을 보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궁금했던 차에 이렇게 친절히 해설을 들으니 정말 재미있었다며 정식으로 전 직원과 환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그림 해설을 요청했다. 흔쾌히 수락한 이경태 회장은 미즈맘 여성병원이 한 달에 두 번 10층 문화센터에서 지역내 산모와 가족들을 위해 여는 문화강좌에 협회 회원들과 함께 미술특강을 정기적으로 열어 줄 것이며, 또 열쇠고리 같은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만들어 미즈맘 가족에게 선물하겠다고 약속했다. 허은실 외래팀장은 “창원미술협과의 결연은 예비엄마들에게 편안함과 여유를 주고, 지역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미즈맘 여성병원의 지향점과 잘 맞아요. 함께 win-win 하는 기분 좋은 만남이죠”라며 환하게 웃는다.



따스한 햇살이 싱그럽게 반짝이던 어느 주말, STX 가족들은 창원 대산미술관으로 문화 나들이를 떠났다. 미술관이 위치한 대신면 유등리의 평화로운 농촌마을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마을 곳곳에 그려진 예쁜 벽화들을 보고 벌써부터 신이 났다. 미술심리 진단과 미술치료 강의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는 자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즐거운 미술활동을, 어른들에게는 미술치료 전반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자녀를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다.

STX & DAESAN ART GALLERY

STX 가족과 함께한
행복한 문화 나들이

DAESAN ART GALLERY



가족과 함께한 문화 나들이

STX조선해양은 이날 메세나 결연을 맺고 있는 대산미술관과 함께 창원지역 계열사 임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경남미술치료교육센터 한정희 소장의 미술심리 진단과 미술치료 강의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는 자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즐거운 미술활동을, 어른들에게는 미술치료 전반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자녀를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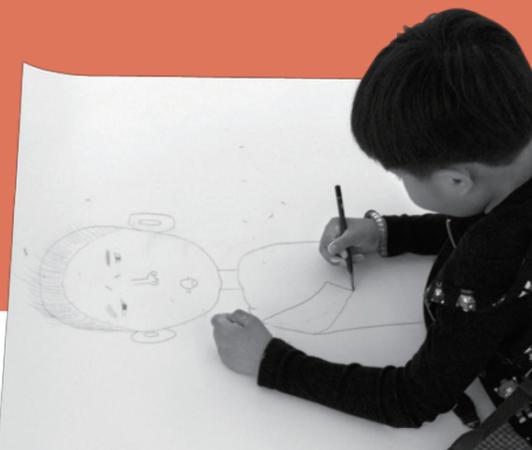
미술심리치료를 통한 치유의 시간

대산미술관 김철수 관장의 인사말에 이어 시작된 미술심리 진단에서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지도에 따라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내면의 세상을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나무, 사람, 집 등을 개성 있게 그린 다양한 그림들이 만들어졌다. 미술진단 후 주어진 휴식시간, 가족들은 미술관에 전시된 그림을 관람하고, 인근에 있는 아름다운 낙동강 포구를 거닐며 여유롭고 편안한 오후를 즐겼다. 두번째 시간, 아이와 어른들을 위해 각기 다른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아이들은 종이에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지점토를 빚어 동물가족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별활동을 통해서 생각의 다양성을 배우고, 선생님들과 올바른 자아상과 가족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른들은 미술치료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칫 어려울 수도 있는 주제였지만 자녀를 이해하고자 하는 열정과 쉽고 유쾌한 강의 덕분에 모두가 집중하며 열심히 들었다. 가족 별로 모여 플라로이드 사진으로 추억을 기록하고, 미술치료프로그램은 마무리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가족들은 미술관 전시일정에 맞추어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하며, 아쉬움을 남긴 채 발길을 돌렸다.



가족과 함께여서 더욱 행복한 시간

STX조선해양 양성진 파트장은 "바쁜 업무 때문에 평소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기 힘들었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어 유익한 강의도 듣고,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 며 활짝 웃었다.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최근 몇 년 사이 우리지역에 크고 작은 갤러리들이 많이 생겼다. 최대한 문턱을 낮추고 예술작품과 대중들이 만날 수 있는 가교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지만, 일반 대중들에게 갤러리는 여전히 상류층이 누리는 문화공간에 다름 아니었다. 그런데 문턱을 아예 없앤 갤러리가 탄생했다. 창원시 회원구 석전동 경남은행 본점 1층 로비 공간에 마련된 'KNB Art Gallery'. 은행을 방문한 고객에게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하는 이른바 아트서비스로 출발한 KNB Art Gallery는 대중과 예술을 이어주는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KNB ART GALLERY

& KIM DONG KYU CONCERT

경남은행 창립 42주년
KNB Art Gallery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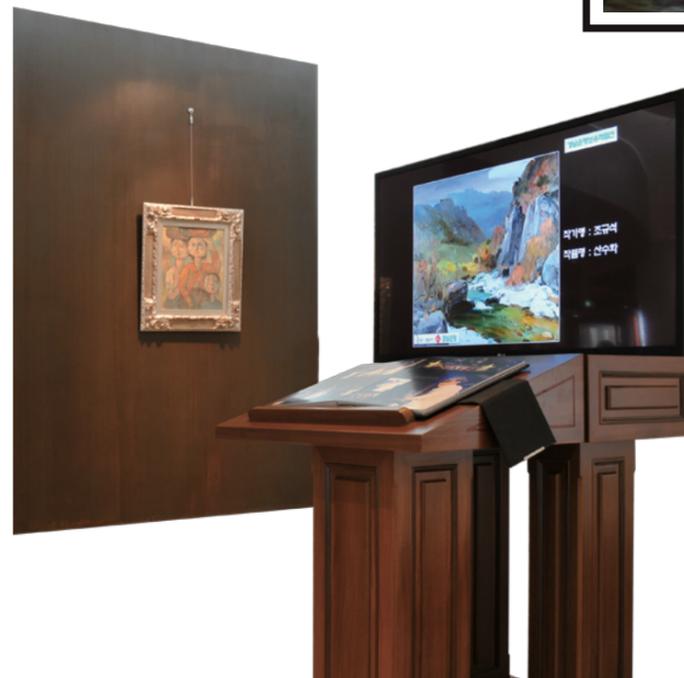
문화예술이 함께한 경남은행 창립 42주년 행사

관심 있게 찾아보면 우리지역에도 크고 작은 갤러리들이 많다. 하지만 지나다 문득 걸음 멈춘 곳이 갤러리 앞이라 해도 선뜻 들어가 지지 않는 곳 또한 갤러리란 공간이다. 그러기에 전시를 위주로 하는 문화는 대중들과 참 멀리도 있었다. 늘 어쩔 수 없다 했다. 하지만 이젠 아니다. 경남은행의 노력으로 은행 본점 1층 로비 공간에 갤러리가 마련되었다. KNB Art Gallery다. 은행 업무를 보며 잠시 즐길 수 있는, 대중과 예술을 이어주는 소통의 공간이다.

지역 문예인 누구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종합문화예술공간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KNB Art Gallery 개관

봄 햇살 눈부신 5월 22일 아침, 석전동에 소재한 경남은행 본점 앞은 이른 시간부터 차들이 붐볐다. 경남은행 42주년을 기념하는 KNB Art Gallery 개관을 축하하기 위한 뜻 깊은 행렬이다. 경상남도 허정도 정무부지사, 창원상공회의소 최충경 회장, 무학그룹 최위승 명예회장, 동서화랑 송인식 관장, 경남오페라단 정찬희 단장, 경남미술협회 서유승 회장 등 많은 내외빈의 참석과 축사로 시작되었다. 박영빈 경남은행장은 자신을 KNB Art Gallery 관장이라 소개하며 "지역 문예인 누구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종합문화예술공간으로 KNB Art Gallery를 운영해 나갈 것"이며 "문화예술작품 관람을 통해 관람객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식견을



넓히고 문예인들은 작품전시회를 통한 창작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첫 전시 그리고 바리톤 김동규 초청 음악회

KNB Art Gallery 개관을 기념한 첫 전시로 우리나라 서양화 1세대 작가이자 마산 출신 작가로 서양화 도입기 근대 경남 미술사의 첫자리를 차지하는 '故 이림 화백 작품전'이 공개되었다. 5개월여 시범운영기간을 마치고 개관한 갤러리에는 관람객들이 작품을 받아들이기 쉽도록 전문큐레이터가 상주하며 회화 조각, 사진,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문화예술작품을 선정 전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저녁 3.15 아트센터에서는 경남은행 창립 42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바리톤 김동규 초청 음악회 '아름다운 당신에게' 공연으로 지역민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이지만 한 단계 차원을 높여 기업의 문화예술의 가치를 만들어 가겠다는 박영빈 관장. 서울, 수도권권에 비해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지역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해 우리지역의 예술가를 소개하고 더불어 신진작가를 발굴하는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하겠다는 그는 말이 앞서지 않는다. 먼저 행동으로 실천하고 보여주는 그의 노력이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인들에게, 기업인들에게 신뢰를 준다. 지역문화예술가와 기업을 맺어주는 메세나를 넘어 때론 영화로, 때론 공연과 전시로 지역민과 문화예술을 잇고, 지역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남은행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경남 지역 유일의 향토 은행이자 대표기업으로서, 또한 기업의 문화예술지원의 메카인 메세나 회장으로서 보여줄 행보에 더 많은 기대를 갖게 된다.

하루하루가 힘들다면
지금 높은 곳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편안하고 쉬운 매일 매일이라면
골짜기로 향한 걸음이다.

때로 평지를 만나지만
평지를 오래 걷는 인생은 없다.

조정민, <사람이 선물이다> 중에서





무엇이든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주)고구려 대표 임채현

아침안개에 쌓인 진동 태봉면, 아름다리 느티나무와 계곡을 돌아 흐르는 물소리... 새의 맑은 지저귐 소리가 가까이 들린다. 정갈한 건물 곳곳에 새들이 집을 짓고 부지런히 먹이를 나르고 있다.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어 더불어 사는, 천상의 낙원 같은 풍경은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욕심이 '욕심을 버리려는 욕심' 이라던가.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여기, 작은 욕심을 버리고 큰 욕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 (주)고구려 임채현 대표의 이야기다. 호구지책이 해결되면 문화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연 닿는 대로 뜻 가는 대로 문화를 누리는 CEO. 그의 문화 사랑을 들어보자.

호구지책이 해결되면 문화로 눈을 돌려야지요

젊은 날, 대금곡 '날개' 를 듣고는 직접 대금을 배우고 싶었던 임대표는 경남국악관현악단 휴의 송철민 단장과 만났다. 그로부터 대금을 배우고 즐기며 메세나 후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밝은 말은 책임을 지는 성격의 임대표는 메세나에 대한 약속을 지켰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하고, 세상은 물 흐르듯 순리에 따라, 인연 따라 살아야 한다고 믿는 그다.

2011년 1월 1일 설립한 (주)고구려는 산업기계분야와 조선키자재산업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국내뿐 아니라 수출부문에서도 모든 기술과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람을 생각하는 제품을 만들되,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하는 기업. 동종 업계 최고연봉은 기업의 이윤보다는 직원들을 먼저 생각하는 CEO의 마인드가 낳은 결과다.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이 사람이라 여기기에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같이 대우한다.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들의 성실성과 착실함을 배운다는 자세로 그들을 대한다. 회사의 준공이 미뤄질 때도 "순리대로 되겠지" 하며 마음 편하게 기다렸다. 매사에 느긋한 그이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만은 다르다. 메세나 협약도 시기를 당겨 했다. 벌써 3년째, 경남국악관현악단 휴의 든든한 메세나 후원자다.

임대표는 늘 직원들에게 '고구려를 위해 살지 말고 자신을 위해 잘 살라' 고 말한다. 삶의 질은 의식을 바꾸는 것이라 믿는 그는 직원들을 위한 문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언제 인류가 노래와 풍류 없이 산적이 있었던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악 강습을 예정 중이다. 강사는 경남국악관현악단 휴가 맡고 대표는 악기를 선물한다. 주 5일 근무 5시 칼퇴근을 지키는 회사의 직원들은 아무 부담 없이 시간만 내면 된다. 고구려는 문화 복원에 애쓰고 인근 태봉고장학급 자원과 지역사회단체 후원. 회사를 통해 번 돈은 내 돈이 아닌 가치 있게 쓰라고 맡긴 돈이라 여기기에 문화 나눔이 자연스레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눈감고 느껴본다. 평화로이 대금 부는 낭군과 가야금 타는 아내... 어디서 호젓한 새소리 들린다. '내 눈엔 모든 새가 극락조로 보인다' 는 임 대표의 말이 떠오르며 세상 모든 이를 그렇게 보는 건 아닌가 싶어진다.



01 임채현 대표가 즐기며 배우고 있는 악기 대금



02 새롭게 단장한 (주)고구려 사옥



03 신축공장 개업식에 펼쳐진 국악 향연

지난 7월, 마산3.15아트센터와 합천문화예술회관에서 상연된 '연애가중계'는 우리지역에서 지역예술인들의 손에 의해 탄생한 창작뮤지컬이다. 뮤지컬은 노래와 춤과 연기를 무대에서 모두 보여주는 종합예술이자 대중예술로서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의 투자를 받기 어려운 지역극단으로서는 도전하기 쉽지 않은 장르다. 그럼에도, 극단 <객석과 무대>(대표 문종근)는 세계 대중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뮤지컬의 가능성을 보고, 서울을 넘어 세계로 나아갈 경남發 명품 뮤지컬 탄생의 꿈을 믿고, 2010년 과감히 출사표를 던졌다. 대한민국 최초로 민주화의 햇살을 밝힌 3.15의거를 소재로 하여 창작 뮤지컬 '삼월이 오면'을 극장에 올려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이다. 이 작품은 지역에서도 뮤지컬이란 장르를 생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다음해 '러브리즈'를, 올해 '연애가중계'를 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러브코믹 뮤지컬 '연애가중계'는 오래된 연인을 소재로 맛갈스러운 에피소드와 유쾌한 웃음을 버무려 다양한 계층의 관객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아라, 서울 뮤지컬이 아니네. 그래도 한 번 볼까?"라며 극장에 들어서던 관객들은 공연이 끝난 후 지역뮤지컬의 든든한 팬이 되었다. 지역에서 뮤지컬을 창작한다는 것 그 어려움과 희망에 대해 문종근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지역에서 뮤지컬을 창작한다는 건

극단 객석과 무대 대표 문종근

극단 <객석과 무대>는?

살아있는 연극 살아있는 무대라는 불굴의 연극정신으로 2000년 10월 창단한 극단 객석과 무대는 지역연극의 발전과 지역 연극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극단의 작업에 전 단원들이 열정의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뮤지컬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뮤지컬을 제작하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벌판에 막 도착하여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랄까? 그런 심정입니다. 경남은 예향의 도시이며 그에 걸맞은 예술장르들이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뮤지컬이란 장르가 존재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 장르가 존재하여 꽃을 피우려면 먼저 농부가 땅을 마련하여 씨앗을 뿌리고 온갖 정성으로 돌보아야 결실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아쉽게 그런 농부와 땅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농부가 되자고 뜻을 모아 뮤지컬이란 씨앗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창작뮤지컬이 만들어지는 사례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작비가 많이 들고, 배우 섭외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뮤지컬 구조는 복잡합니다. 한 분야가 몇 단계로 나누어지고 연습과정도 복잡합니다. 그리고 비주얼의 미학을 중시하기에 제작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

역에서 극단 자체의 역량으로는 제작이 불가능합니다. 지역에서 뮤지컬이 생산되지 않기에 지역에 뮤지컬 배우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힘든 상황을 "하고 싶다! 정말 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과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문화예술관계기관의 뮤지컬 분야를 살리고 꽃 피울 수 있는 정책과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 뮤지컬 단체의 열정이 멋진 트라이앵글로 형성될 때 지역 뮤지컬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연애가중계'가 만들어진 과정이 궁금합니다.

이 작품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해보자!"는 극단의 뜨거운 열망에서 시작되어, 경남의 대표적 기업인 경남에너지(주)와의 메세나 결연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래, 이 돈을 밀천으로 삼자!" 그리하여 2011년도에 극작가를 섭외하고 계약하여 창작 대본을 만들었고, 2012년도에는 경남문화재단의 사업비 및 경남에너지(주)의 메세나 기금이 제작비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래도 제작비가 부족하여 이리저리 뛰다보니 경상남도와 경남은행을 만나 보조금을 받게 되어 총제작비 59%를 확보하고 무작정 서울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뮤지컬 배우가 양성되어 있지 않았기에 부득이 서울에서 오디션과 학교로 연습실에서 50일간 치열한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41%가 새까만 밤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관객을 믿자. 죽어도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내려가자는 신념으로 연습한 결과, 이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도와준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고마움을 전합니다.

앞으로의 공연 계획은?

우리 극단은 우리지역의 아름답고도 아련한 뮤지컬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재들은 매킨토시의 뮤지컬 <미스사이공>보다 더 세계인에 가슴을 울릴 것입니다. 이 소재들을 작품화할 것이며, 또한 뮤지컬 배우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배우 양성에 힘 쏟을 계획입니다. 응원하면서 지켜봐 주세요.



지난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는 매우 뜻 깊은 전시회가 열렸다. 그건 바로 한·중수교 20주년기념 문자문명 북경전이다. 문자문명전은 지역 서예가들을 중심으로 창원 다호리에서 출토된 붓을 화두로 문자의 문명사적, 미학적 역할과 미래를 모색하자는 주제로 경남메세나협회의 후원을 받아 2009년부터 열려온 전시회이다.

지난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는 매우 뜻 깊은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그건 바로 한·중수교 20주년기념 문자문명 북경전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서예의 본고장인 중국의 문화부 직속 서예술연구기관 중국서법원에서 초청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규형 주중한국대사와 왕문장(王文章) 중국 문화부 부부장 등 고위급 간부를 비롯해 100여명의 사람들이 전시장에 몰려 성황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전시회에서는 서예라는 정형화된 틀을 깨는 재미있는 작품들을 대거 만날 수 있었는데요, 동아시아 서예의 미래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참신한 탐색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마지막 날에는 이규형 주중한국대사가 방문단 모두를 한국대사관으로 초청해 이국 땅에서 문화로 조우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북경전시에서는 이돈홍, 정도준, 박원규, 최민렬 등 한국작가 22명의 작품 60점과 이강, 장여지, 왕용, 소암 등 중국작가 25명의 작품 70점이 출품된 이번 전시는 200여평의 중국서법원 전시관에서 대규모로 진행 되었다. 특별히 이 전시를 보기위해 손동준, 김성태, 이수희, 김종원, 이병남, 정대병, 박금숙, 박영도 작가를 비롯해 경남도민일보 김민지 기자와 본 기자 이렇게 14명은 방문단을 꾸려 북경으로 날아갔다.

눈을 즐겁게 하는 서예

이번 문자문명전에 출품된 서예가 손동준의 작품은 캔버스에 유화로 제작된 독특한 기법의 작품이었습니다. 일단 재료부터가, 도저히 서예라고 볼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인데요. 액션페인팅과 흘림체 글자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형상이 셋노란 아크릴로 매우 감각적으로 표현된 작품이었습니다. “무슨 글자를 쓴 것이냐” 물었더니 “읽을 수 없다. 문자가 아니다” 라는 기상천외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서예작품이 될 수 있냐” 고 되물자 “그것이 바로 문자문명전이 열리는 이유” 라는 알 듯 말 듯 한 대답을 합니다. 문자문명전을 기획한 문자문명연구회 김종원 회장은 “사회가 디지털화 될수록 문자는 의미를 전달하는 부호의 기능만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서예는 의미 전달보다 문자 본연의 정체성인 상형(象形)으로 돌아가야 한다” 는 철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즉 서예작품을 보고 즉각적으로 느끼는 아름다움에서 의미를 추출하도록 만들자는 것인데요, 서양인들이 한자를 보고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보기 좋다” 고 느낀 후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 하는 감상법을 유추해 본다면 문자문명전이 추구하는 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자문명
북경전 취재기

취재 경남신문 문화부 김유경

서예라는 독특한 예술 장르

서예는 한 작품을 통해 글자의 모양을 보고 그 뜻을 파악하는 두 가지 감상이 가능한 독특한 예술입니다. 또 왕희지나 김생, 김정희 등 일가를 이룬 옛 서예가들의 글씨를 그대로 베껴도 어느 누구도 “표절”이라며 시비를 걸지 않는 유일한 예술 장르이기도 합니다. 이런 서예의 방향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자는 것이 문자문명전에 참여한 양국작가가 가진 공통적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서단에 유행한 ‘진위서도’ (前衛書道)라는 아방가르드풍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진위서도는 문자의 한 부분만 크게 쓰거나 먹의 농담을 이용해 문자의 조형미를 극대화시킨 서풍입니다. 이 서풍은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잭슨 폴록, 마크 토비 등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고 현재 일본 서단은 다시 전통서예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대와 사회에 따라 전통적 서예와 정형화를 탈피하려는 서예는 평화롭게 공존하며 다양한

수요층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문자문명

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디지털 문명은 문자를 거주장스러운 것으로 지부하고 있다. 이에 서예술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의 명제를 놓고 한국 서예가들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몸부림은 서예의 본고장인 중국에서 선행되어야 함에도 한국, 그것도 지역도시인 창원에서 모색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 중국 서예가들이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다. 고루한 서예를 어떻게 동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2012문자문명전 창원전

문자문명전은 북경전시 이후 오는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창원 성산아트홀 전관에서 ‘2012년 문자문명전’이라는 타이틀로 서예와 설치 등 현대미술 국내외작가의 작품 200여 점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문자문명전은 올해가 17세기 동아시아 세계질서를 재편성한 임진전쟁(1592)의 발발 7주년을 맞은 것에 착안해, ‘역사인물과 사건의 재해석’을 타이틀로 정했습니다. 기존의 조선과 일본의 분쟁이 아닌 중국과 일본의 왕조와 지배체제를 바꾼 임진전쟁으로의 인식을 예술로 해석해보자는 취지인데요. 여기에 경남과 창원의 지정학적 역사적 위치에 대한 미학적 인식과 표현 제고하려는 목적도 가미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진전쟁의 중심인물인 선조대왕, 이순신, 유성룡 등과 경남의 임진전쟁 역사인물과 역사의 현장인 한산도, 진주성 등의 지역적 의미까지도 우리시대 작가를 통하여 재해석 합니다. 이번 문자문명전은 경상남도와 창원시, 경남메세나협의회, (주)중앙금속, (주)우화, (주)경남스틸, 경남은행이 후원합니다.

정형화된 틀에서 탈피해 살아 움직이는 서예술을 지향하는 것이

‘서예가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미술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돌파구’

중국 서예계를 주도하는 유행서풍

이번 전시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사람은 중국서법원 부원장인 증상(曾翔) 교수인데요. 그는 ‘유행서풍’ (流行書風)이라는, 현대 중국서단을 이끌고 있는 리더그룹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 교수가 작년 가을 별 기대 없이 창원 성산아트홀을 찾았다가 문자문명전의 취지와 방향, 출품작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문자문명전과 중국 유행서풍이 추구하는 서예술이 가진 공통점을 발견하고 즉석에서 초청을 제의했다고 합니다. 김진곤 주중한국대사관 문화원장은 “이번 전시처럼 중국 국가기관이 먼저 교류전을 제의한 적은 거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문자문명전은 양국의 문자예술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특별한 교류전이다. 특히 이번 해는 한·중수교 20주년이라 그 뜻이 더욱 깊다” 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서풍, 다양한 수요자

베이징과 상하이에 포진한 현대 중국 서예가들의 유행서풍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역시 과격적인 작품과 단정한 전통 서예작품도 폭넓게 포괄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이번 전시와 같은 과감한 시도와 치열한 탐색을 통해 ‘서예는 고루하다’는 편견을 깨고 서예가 대중의 생활 깊숙이 스며드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멀리 있어도 생각은 통한다

증상 교수는 “한중간 교류전시는 특별한 철학적 고찰 없이 친선을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작년 창원에서 열린 문자문명전에서 한국서단의 새로운 면모를 엿보았다. 문자의 정형화를 탈피해 수묵과 문자의 현대적 조합을 시도한 작품에서 한국 작가들의 참신한 상상력을 발견했고 이는 현대 서예를 이끌어 가고 있는 중국작가들이 가진 생각과 일맥상통하기도 한다. 이번 전시는 서예를 동아시아 뿐 아니라 세계적 예술로 발전시키려는 양국 작가들의 과업에 유의미한 발로가 될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중원 문자문명연구회 회장은 “문자가 인류문명을 이루는 바탕이 되었



01 문자문명 북경전 오프닝 행사

02-3 작품을 둘러보는 관람객들

04 방명록을 쓰는 이규형 주중한국대사

05 증상교수와 김중원 회장의 대담

06 전시중인 작품들



루돌피눔드보르작 홀에서의 공연



오스트리아 시청관 악극관



유럽에 울려 퍼진 산골 아이들의 희망 선율

함양 다별청소년관악단 유럽순회 공연기

함양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다별청소년관악단은 지난 7월 18일부터 11일 동안 유럽순회공연을 다녀왔다. 18일 루마니아 티미쇼아라 필하모닉홀을 시작으로, 21일 오스트리아 빈 필름축제, 23일 체코 스토나바 지역축제를 거쳐 25일 프라하 드보르작 홀에서 연주를 성황리에 마쳤다. 산골 아이들의 통 큰 도전에 경상남도과 경남은행, 삼성, 한국마사회 등의 후원이 큰 힘이 되었다. 우리 아이들의 음악이 유럽 곳곳에서 연주되고,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낸 이번 순회공연은 그야말로 메세나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기적이다. 자, 이제 유럽순회를 떠난 아이들의 일기장을 들여다보자.

다별관악단 유럽으로 떠나다 7월 17일 우리 다별관악단은 유럽순회공연을 위해 설렘을 안고 한국을 떠났다. 인천공항에서 두바이를 거쳐 다음날 부다페스트 호텔까지 갔지만 아직 내가 유럽에 있다라는게 믿기지 않았다. 외국인들은 우리를 신기하게 보았고, 우리도 그 나라 사람들이 신기했다. 우리가 묵게 된 호텔은 시설과 음식이 무척 좋았다. 이날은 너무 피곤하여 일찍 잠들었고 둘째 날에 연주가 있어서 티미쇼아라 필하모닉홀에 갔다.

유럽에 희망의 선율을 선사하다 그곳은 매우 좋았지만 낯선 곳이었다. 리허설이 끝나고 연주에 들어갔다. 연주할 때 너무 더웠지만 1부는 무사히 끝났다. 쉬는 시간에 구명으로 관객석을 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보니 가슴이 떨렸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히고 무사히 2부 연주를 끝내고 나니 관객들이 많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어 뿌듯하고 고마웠다. 공연 후 밖에 나갔는데 바깥 풍경이 사진 같이 예뻐다. 홀 근처가 호텔이라 걸어가는데 많은 사람들과 비둘기들을 보았다. 셋째 날에는 관광 위주로 돌아 다녔다. 시내를 돌아보는데 날씨는 덥고 건조했으며 사람들은 뚱뚱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유럽은 나라가 커서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이 많았다. 넷째 날에는 비엔나에서 연주가 있었다. 비엔나로 가는 거리는 멀었지만 창밖의 풍경이 너무 예뻐

다. 하지만 가는 동안 비가 와서 사람들이 많이 울지 걱정이 되었다. 오스트리아 시청 앞 야외무대에서 시작된 사물놀이 공연이 사람들을 모았다. 간단한 리허설을 하고 연주를 시작하였지만 연주 도중에도 비는 계속 왔다.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앉아있던 사람들도 많았다. 연주를 끝내고 저녁을 먹었는데 여기 음식은 맛있게 먹었다. 다섯 번째 날에는 체코의 스토나바 지역 성당의 초청연주에 갔다. 성당이란 곳을 처음 가보았는데 성당은 너무나도 크고 소리도 크게 울렸다. 이곳 성당에서의 관객은 대부분이 할머니, 할아버지였다. 이때의 연주는 무척이나 좋았다. 연주를 마치고 우리는 근처 조그만한 놀이동산 같은 곳에서 놀았다. 비록 놀이기구는 1개밖에 타지 못했지만 재미있는 하루였다. 여섯 번째 날에는 프라하 시내에 가서 관광을 하였다. 국회의사당과 동상을 많이 보았다. 이곳의 건물들은 거의 비슷하게 지어진 것 같았다. 특히 프라하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일곱 번째 날에는 시내에서 오후까지 관광을 하며 야경 구경도 하였다. 여덟 번째 날에는 가장 큰 공연장에

서 우리의 마지막 연주가 있었다. 루돌피눔 드보르작 홀이라는 곳이었는데 이때 차가 막히고 버스가 갈 수 없는 곳이 많아서 조금 늦을 뻔하였다. 이곳은 정말 웅장하고 신비로웠다. 사람들이 많이 보러 와서 실컷 긴장도 되었다. 마지막이라 그런지 서로의 호흡이 잘 맞았고, 멋진 연주가 되었다. 사람들도 함참이나 기립박수를 쳐주어 그 순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흥분과 긴장의 연속이었던 순회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독일에 들었다. 카톨릭 궁정교회와 많은 곳을 갔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였고, 사암으로 만들어져 검은 부분이 많은 곳이 역사 오래된 곳이라고 해서 감탄했다.



아쉬움을 뒤로한채... 독일 여행을 끝으로 아쉬움을 뒤로한 채 우리는 7월 29일 한국에 도착했다. 이번 연주로 인해 유럽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가게 되어서 기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본 것과 그들이 우리와 많이 다른 것도 알게 되었다. 유럽의 건물들은 거의 다 100년이 넘었다고 한다. 하지만 100년이 넘어도 아름다운 것은 여전하다. 우리의 음악도 그렇게 영원히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주면 좋겠다. 다음에도 기회가 생기면 유럽 같은 멋진 곳에 가서 연주도 하고 여행도 하고 싶다.

가고파라, 가고파 그 잔잔한 고향바다

시조시인 노산 이은상 글 / 사진 박서영

마산은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운 도시다. 창원과 통합되긴 했지만 여전히 마산의 정신, 마산의 골목에는 강렬한 자유의지와 민주화의 냄새가 남아있다. 역사의 슬픔을 간직한 채 밤의 바다는 출렁거린다. 마창대교의 야경과 공단에서 흘러내리는 불빛들이 뒤섞여 마산의 밤은 깊고 아프다. 한 도시의 역사가 가진 가슴 아픈 기억은 어떤 이에겐 늘 현재성으로 남아있다. 노산 이은상은 바로 마산이 가진 문화예술이자, 또한 역사의 고통으로 남아있는 시조시인이다.

마산, 그 뜨거운 이름

나는 가장 먼저 마산문학관을 찾았다. 햇볕이 따글따글 세상을 들볶고도 남을 정도로 더운 날이었다. 마산 문학관은 추산동 쪽대기에 있다. 원래 이은상을 기념하기 위해 '노산문학관'으로 명칭을 하려고 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마산문학관'이 되었다. 문학관으로 올라가는 가파른 비탈길은 공사 중이었고, 지붕 낮은 옛집들은 헐리거나 증축 중이었다. 구불구불한 골목을 돌아 마산문학관 뜰에 서면 멀리 합포만이 내려다보인다. 예전의 넓고 푸른 합포만은 없고 호수처럼 잔잔한 합포만이 반짝이고 있다. 저 고요함을 몰아내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마산은 얼마나 뜨거운 도시였던가. 민주화와 혁명의 심장부로 늘 출렁였고, 피로 만든 역사의 증언을 생생히 간직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마산이다.

문학관 전시실에서 '창원예술 지도'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 지도 속에서 노산 이은상의 흔적을 찾았다. 몇 개의 시비와, 은상이 샘, 그리고 노산이 태어난 생가지가 표시되어 있었다. 이은상의 '가고파' 시비가 세워진 곳은 돌섬해상유원지, 마산여객터미널, 양덕동 수훈공원, 자산동 통일동산, 창신대학교 등이다. 이은상은 마산 합포구 상남동 102번지에서 태어났다. 사무실에 들어가 생가의 위치를 물어봤지만 아는 이가 없었다. 이정표나 표식이 없어 찾아가기 힘들 거라는 말만 들었다. 다행히 은상이 샘의 흔적은 남아있던기에, 옛 북마산파출소 자리에 있다는 은상이 샘을 찾았다. 늘 이은상에 대해 거론할 때 논란이 함께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은상이 샘'이다. 3.15기념비와 나란히 서있는 '은상이 샘'에는 이런 글이 써져져 있다.
<민족시인 노산 이은상(1903-1982)선생을 기리고 시민의 열과 정서를 해맑게 하기 위하여 생명의 젖줄 은상이 샘을 이 자리에 옮겨 복원합니다. 원위치 전방 200m 지점. 1996년6월 마산시.>
사실 노산 이은상은 마산의 입장에서든 홀대할 수 없는 큰 예술인이다. 그것은 노산 이은상이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3.15 마산의거의 도화선이 된 자유당부정선거에 깊이 관여한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작품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노산 이은상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마산 3.15의거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이다. 3.15의거는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부정선거에 반발하여 마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다. 항의하는 마산시민에게 경찰이 무차별 발포를 하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독재타도를 외치고, 28일 동안 실종되었던 김주열의 시체가 4월11일 마산 중앙부두에서 떠오르자, 이에 분노한 마산시민의 2차 시위와 함께 전 국민의 분노가

확산되어 4.19혁명의 기폭제가 된 것이다. 이런 마산의 정서가 노산 이은상을 순수 문화예술인만으로 받아들이기엔 힘들 것이다. 그렇기에 시민단체와 문화예술인 사이의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인간의 일생이 어찌 공만 있었는가. 특히 이름 있는 문화예술인의 경우 정치사회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에 놓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문화예술인이더라도 잘못까지 덮고 갈 순 없을 것이다. 하물며 '마산' 이질 않는가? 마산의 상징은 3.15의거이며, 민주화의 성지처럼 생각되는 곳이기에 노산 이은상의 문제는 민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에 시민단체의 입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노산기념사업의 각종 행사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노산을 존경하고 아끼는 문화예술인과 사회단체가 행하는 행사는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정치 사회적 잣대와 문화예술가로서의 예술성이라는 잣대. 이 두 잣대의 싸움 앞에서 노산 이은상은 아직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슬프게도 노산의 대표작(가고파)에는 나라 잃은 설움과 우리 민족의 혼이 스며들어 있다. 그리고 노산 이은상의 작품들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서정적이다. 역사와 시대 앞에서 굴절을 겪어야했던 한 예술가의 고뇌와 절절한 그리움이 스며들어있다. '가고파'를 비롯하여 그의 대표작인 '봄 처녀' '성불사의 밤' '옛 동산에 올라' '그 집 앞' '금강에 살으리랴다'를 읽어보고, 또 가곡으로도 들어보라. 어디선가 한번쯤은 들은 적 있는, 귤가에서 늘 맴도는 낯설지 않은 가곡들이 바로 노산 이은상의 작품들이다. 그의 가슴에 고향이, 조국이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있었는지, 그의 작품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이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오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날으리 가고파라, 가고파

어릴 제 같이 놀던 그 동무들 그리워라,
어디 간들 잊으리오 그 뛰놀던 고향 동무
오늘은 다 무얼하고 보고파라, 보고파

이 시대 우리에게서 제 고향 밖에 갈 곳이 어디나

노산 이은상은 1903년 10월22일 마산에서 출생하여 1982년 9월 18일 7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문화예술인으로서 그의 이력은 화려하다. 1923년 연희전문학교를 중퇴, 1926년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사학과를 청강하였다. 귀국한 뒤로는 1931~32년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수를 지낸 뒤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호남신문사 사장을 지냈고, 1950년 이후 청구대학(지금의 영남대학교),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1954년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 되었고, 1959년부터 충무공 이순신 장군 기념사업회장, 안중근 의사 숭모회장 등을 맡아보았다. 1967년 시조작가협회장, 한글학회 이사를 지냈고, 1969년 독립 운동사 편찬위원장, 1972년 숙명여자대학교 재단 이사장이 되었다. 1970년 경희 대학교에서 문학박사학위, 1974년 연세대학교에서 명예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76년 성곡 학술문화재단 이사장, 총력 안보 국민협의회 의장, 시조작가협회 중신회장, 1978년 예술원 중신회원으로 추대되었고, 1981년 국정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문화예술계는 흔히 노산 이은상을 현대시조의 선구자라고 한다. 노산이 시조를 발표하기 시작한 것은 1923년 첫 작품<노산 시조집>을 내면서부터다. 당시 카프문학에 대립한 국민문화파의 주역으로 활약하면서 시조의 형태나 내용면의 현대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노산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투옥되었다가 전남 광양경찰서에서 광복을 맞았다.

노산의 시조는 서정과 서경이 어울린 독보적인 경지를 이룬, 가운데 민족혼이 그 주조의 특징이며 전통적인 시조의 '3장' 을 과감히 깨트리고 초장과 종장의 '2장' 시조를 최초로 시도, 시조현대화의 가능성을 열었다. 특히 그는 타계 전체인 1981년 7월, 후

전선을 찾은 후 통일의 염원과 분단민족의 한을 담은 최후의 시조집 <기원>을 병상에서 출간한다. <기원>은 그의 나이 77세 때, 남북 분계선을 밟고 쓴 소재목 42개 205수로 구성된 서사 시조집이다.

**고향, 고향이란 것 애수 섞인 목가만은 아니다
4천 년 3천 년 전 아브라함, 모세에게는 새 땅이 있었다
그러나 이 시대 우리에게서 제 고향 밖에 갈 곳이 어디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직설적으로 나타나있다. 힘든 시대를 거쳐온 한 유명 예술가의 작품에 대한 업적보다, 나약한 인간으로서의 잣대만을 들이댈 때 우리가 손에 쥌 수 있는 것은 몇 톨의 유산일까. 남은 자들은 스스로 문화예술에 있어서는 궁핍한 자가 되려고 하고, 정치적 입장에서 더 많은 부자가 되려는 것은 아닐까. 살아있는 자의 슬픔이란 언제나 당대의 정치사회적 고초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올바른 길을 간다고 하지만, 먼 훗날 이 시대는 또 어떻게든 평가되어, 나약하고 불쌍한 기성세대가 세상을 망쳐놓았다고 누군가는 그리 말할 지도 모른다. 후과 백, 두 가지 잣대만으로 예술을 평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무엇이든 한 가지만 지나치게 부각되면 기형이 된다.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찾을 때 마산이라는 도시는 그 정체성이 더욱 분명해지고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3. 가고파라, 가고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가고파 시비가 세워져 있다는 마산여객선 터미널로 가 보았다. 나도 모르게 '가고파' 가 입 안에서 흥얼거려졌다. 너무나도 친숙한 노래였기에 자연스러웠다. 태어나 고향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 떠나는 사람들은 떠나는 이유가 있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국인의 정체성은 얼, 말, 글에 있다고 한 노산의 말을 떠올렸다. 얼, 말, 글은 곧 자신의 고향에 대한 정체성이기도 하다. 경상도 사람에겐 경상도 방언을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듯 말이다. 여객선터미널 주차장 한 가운데 질푸른 녹음이 우거진 곳에 흰 탑이 서 있었다. 탑 아래에 새겨진 '가고파' 는 낡고 오래되어 글자가 흐릿했다. 시비도 세월의 흔적을 덕지덕지 묻히고 기억 속으로 사라지는 듯하다.

1921년 두우성이라는 필명으로 『아성 我聲』(4호)에 「혈조 血潮」라는 시를 발표하였지만, 본격적인 문학 활동은 1924년 『조선문단』의 창간 무렵부터였다. 노산은 이 잡지를 통하여 평론·수필·시 등을 다수 발표하였는데, 그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국학이나 시조는 거의 등한시하고, 서구의 자유시 쪽에 기울어 있었다. 이 무렵에 발표한 자유시는 30편을 헤아리고 있는 데 비하여 시조는 단 한편에 불과하였다. 그러다가 1926년 후반에 이르러 시조 부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시조를 비롯한 전통문학과 국학 쪽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는 시조는 문학이 아니라고 낮추어 생각하였다가 시조 논의가 일어나자 비로소 시조를 문학으로 인정하게 되었다고 술회한 바 있으나, 한동안 자유시와 시조의 창작을 병행하다가 1930년대 후반부터 시조인으로서의 자리를 굳혔다. 그는 시조를 쓰는 한편, 당시(唐詩)를 시조형식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시조에 관한 이론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1932년에 나온 그의 첫 개인 시조집인 『노산시조집 鷺山時調集』은 향수·감상·무상·자연예찬 등의 특질로 집약된다. 그의 시조 작품들은 평이하고 감미로운 서정성이 가곡에 걸맞아 노래로 만들어져 널리 불

리워지고 있다. 광복 후 그의 시조는 국토예찬, 조국분단의 아픔, 통일에 대한 염원, 우국지사들에 대한 추모 등 개인적 정서보다는 사회성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울어갔다. 사학가이자 수필가이기도 한 노산 이은상은 해박한 역사적 지식과 유려한 문장으로 국토순례기행문과 선열의 전기 등을 많이 써서 애국사상을 고취하는 데 힘썼다. 광복 후에 문학보다는 사회사업에 더 많이 진력하였다. 시조 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충무공 이순신 연구로 사학계에도 널리 알려진 그는 생전에 『노산시조집』과 『노산문학선』

**슬프게도 노산의 대표작<가고파>에는 나라 잃은 설움과
우리 민족의 혼이 스며들어 있다. 그리고 노산 이은상의 작품들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서정적이다.**

등 1백여 권의 저서를 남겼다. 노산이 처음으로 시험한 양장 시조는 우리나라 시조 문학의 현대화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는데, 주목할만한 시조와 산문으로 국문학계의 거봉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노산의 문학적 업적이 다른 이유로 폄하된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한 인간의 일생은 변하고, 우리도 언젠가는 우주로 사라진다. 죽은 이의 등 뒤에서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역사가 만들었고, 국가가 만들었음을 생각해 볼 때, 역사도 아니고 국가도 아닌 한 톨의 나약한 인간으로서 생각해 본다. 나는 어디에서 서서 불어오는 바람을 온 몸으로 맞으며 서 있는 자를.

노산 이은상에 대한 자료는 <마산문학관 자료와 경남시조2011년 28호>를 참고하였습니다.
.....
박서영 시인은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 1995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하였고, 200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지원금과 2010년 요산창작기금을 받았다. 한국작가회의와 한국시인협회 회원이며, 시집으로 『붉은 태양이 거미를 문다』가 있다.



추억 혹은 예술 찾기, 창동藝術村 탐방



뛰는 듯이 빨라졌다가 또 멈춰선 듯 하염없이 느려졌다. 도무지 걸음을 종잡을 수가 없다. 골목을 들어서서 순간부터 나의 발걸음은 머릿속 기억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다.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20년 전 추억 속을 걸어보기로 했다. 젊음을 몰랐던 젊은 그때. 우정과 사랑에 울고 웃으며 '하루가 멀다'고 지나던 창동거리. 슬며시 감은 눈의 벽엔 지난 추억들이 방울방울 맺힌다. 폐허 같은 뒷골목으로 변해 술한 이들의 추억을 서글프고 안타깝게 만들던 곳. 창동 골목길이 새로운 색을 입었다. 지역의 '예술 좀 한다'는 이들이 모여든 것이다.

창동 예술촌

20여 년 전, 친구들끼리 내기를 했다. 창동에서 아는 사람 많이 만나기. 한 시간 동안 길거리에 서서 아는 이를 몇 명 만나는지 헤아리고는 적게 만난 사람이 술을 샀다. 무슨 시시한 내기가 싶을 수도 있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리라. 그 좁은 거리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오갔는지.. 20년 전 회상속의 게임이 이곳 창동에서 다시 유행할지도 모른다. 아니 그러하리라 믿는다.

창원시의 원도심 재생사업과 맞물린 창동 예술촌이 들어선 이후 사람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예술촌을 찾은 6월의 어느 평일 아침. 9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라 거리는 텅 비었으리라 짐작했는데 아니었다. 이른 시간부터 창동예술촌의 명성을 확인하려는 이들로 분주했다. 고려당에서 출발해 올라가는 골목엔 한 눈에 봐도 예술가들의 작업실로 보이는 개성있는 가게들이 즐비하다. 기존 점포들 사이에 띄엄띄엄 자리한 창동 방송국과 창원시 유일의 유리공방, 전통도자기를 만드는 창작도에 공방, 순수미술과 멀티미디어 아트 작업실, 체험화실, 설치 미술 등의 체험예술 작업실, 서각체험과 조각체험실, 만화방, 고서방 등은 마치 보물창고인양 하다. 예술촌을 찾은 이들을 맞아주는 듯 천상병 시인의 해맑은 미소가 벽화로 되살아났다. 굴렁쇠를 굴리고 창동 이야기를 엮은, 밤이면 조명으로 더 빛나는 벽 조형물들을 보며 끝 모퉁이를 돌아가니 예쁜 공방들이 하나 둘 씩 나타난다. 이렇듯 지금 창동 예술촌은 새로움이 가득하다.



창동예술촌을 돌아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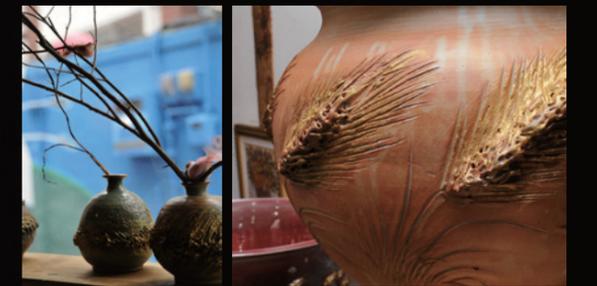
예술촌을 구경하고 옛 추억에 더듬으며 창동 시내를 찾는 이들과 각종 전시회 유치를 통한 경제단체 등의 왕래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 이는 쇼핑, 식사 등의 소비촉진으로 이어진다. 예술촌 형성 이후 옛날 전성기만큼은 아니지만, 매상도 10배 이상은 늘었다고 한다. 반가운 일이다. 타 도시에서도 창동 예술촌을 나들이를 한다니 옛 명성을 찾기도 멀지 않을 것 같다. 갤러리를 찾아 특정 작가의 결과물인 작품을 구경하는 것도 물론 좋다. 하지만 예술촌은 한걸음 더 나아갔다. 작업의 과정을 알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을 접하며 작가와 직접 소통이 가능하기에 더 많은 감흥을 느낄 수 있다. 찾아가는 미술 시대를 연 창동 예술촌. 시와 예술가들이 연결되어 윈도심 재생에 힘쓰는 모습을 보며 기업과 문화예술단체가 결연하는 메세나를 본다. 꼼꼼하게 읽고, 보고, 느끼고 이문 저문다 열어 보고 싶은 스토리가 있는 거리. 부모의 옛 추억과 아이들의 현재가 공존하며 상권과 예술이 공존하는 창동 예술촌이 우리에게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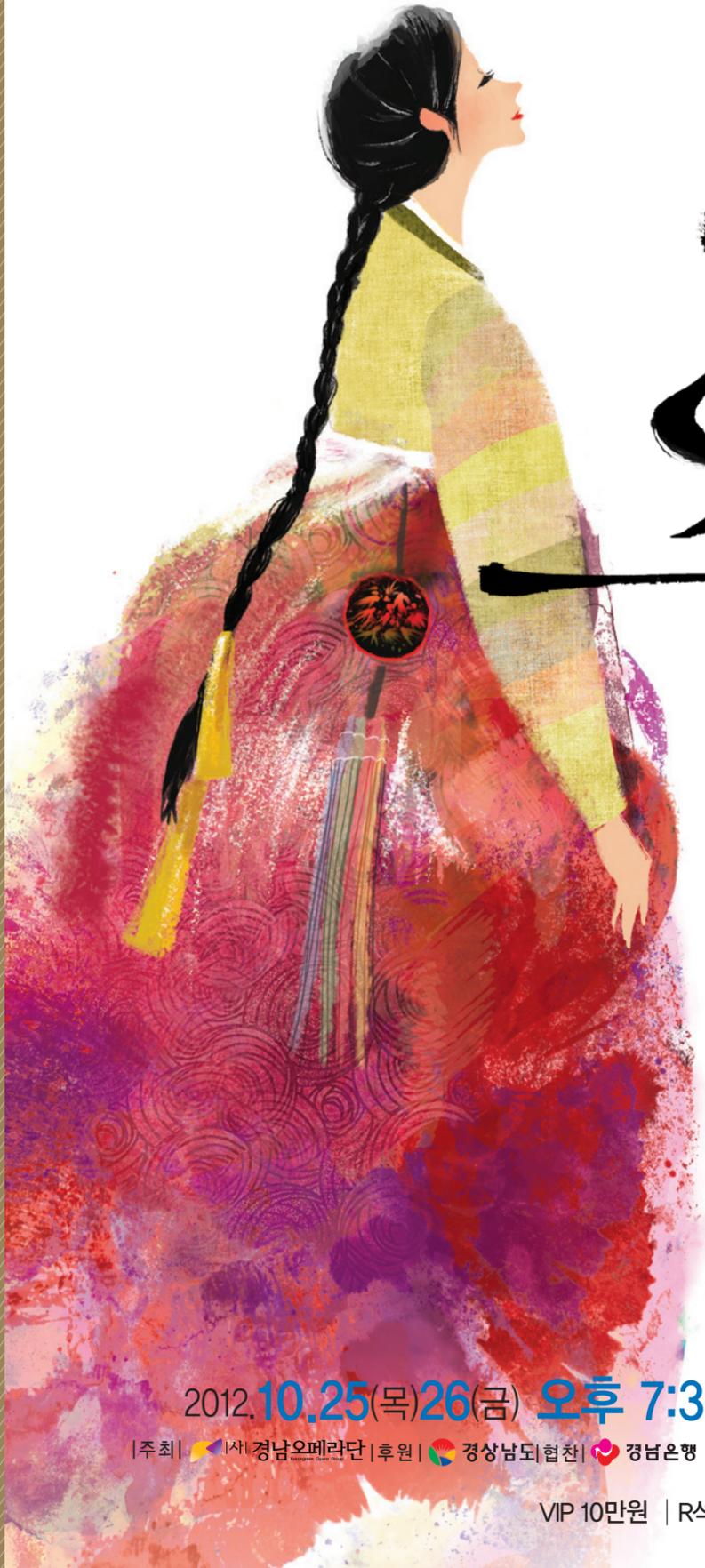
CHANG DONG ART VILLAGE



보리도예공방 도예가 김은진

창동예술촌 길 끝 모퉁이를 돌아가니 예쁜 공방이 나타난다. 바로 '보리도예공방'이다.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일단 들어가 본다. 다양한 모양의 도자기에는 황금보리가 가득하다.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아름다운 곡선을 자랑하는 달 향아리도 눈에 띈다. 김은진... 어느 영화에서처럼 물레질하는 모습을 상상했는데, 아니란다. 독대장인 예성 강월용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배운 코일링(Coiling) 기법을 사용해 도자기를 만든다 했다. 손으로 한 층 한 층 두드리고 다져 쌓아올린 도자기의 선이 어찌 이리 곱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 싶다. 주둥이 좁고 엉덩이 펴퍼짐한 도자기, 남근처럼 우뚝 솟은 도자기, 아랫굽이 훔쩍 높은 도자기... 구경만으로도 시간이 한참이다. 그렇게 낮이 팔린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구경 차 들어온다. 함께 향아리 이야기를 들었다. 복을 부르는 처녀향아리, 복을 담은 아지매 향아리, 근심 걱정을 담아두는 걱정 향아리... 우리네 조상들은 이런 다양한 모습의 향아리로 장식은 물론, 액을 막고 복을 담은 청성과 기원을 담았다 한다. 삶 속의 향아리... 무심코 보았던 술한 향아리가 이제 내 삶 속 가까이 들어온다. 자신에게 추억의 거리였던 창동에서, 이제 자신이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주체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김은진 도예가와 함께한 시간. 단순한 구경을 넘어 작가와 직접 대화하고 작품의 의미를 알아가는 이 과정이 어찌하면 예술촌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다.





춘향

현재명 오페라

일편단심 춘향
그녀의 지고지순한 사랑이
유쾌한 오페라로 부활한다

지휘 정치용 연출 유희문
창원시립교향악단 / 창원시립합창단 / 창원시립무용단
창원성산아트홀 대극장

2012. 10.25(목) 26(금) 오후 7:30 10.27(토) 오후 5:00

[주최] | 새 경남오페라단 | 후원 | 경상남도 협찬 | 경남은행 |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경남 오페라단 266-5580

VIP 10만원 |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4만원 | B석 3만원

시대를 초월하는 우리의 영원한 고전 '춘향'

새로운 기획과 감각적 연출로 재탄생한 오페라<춘향>
최고의 출연진과 스텝진 그리고 창원시립예술단이 총출동하여
잊지 못할 감동의 무대를 선사합니다.

춘향, 대한민국 최초의 창작 오페라

1950년 현재명이 작곡한 한국 최초의 창작 오페라 <춘향>은 지금껏 국내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어온 우리 창작오페라로 한국적 내용과 서양음악이 조화롭게 융화되어 한국오페라에 봄을 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한 작품이다.

해학과 위트가 가득한 유쾌한 오페라

권력앞에서 흔들림없는 춘향의 지조와 사랑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준 몽룡, 그들의 사랑을 응원하는 월매, 방자, 향단의 생생한 캐릭터가 시종일관 유쾌함을 선사한다.

우리가락이 녹아있는 흥겨운 오페라

오페라 <춘향>은 한국적 색채와 경쾌한 우리가락이 잘 녹아든 작품으로 2막에서 춘향과 몽룡이 함께 부르는 '사랑가' 는 어깨춤이 절로 나는 흥겨운 이중창이다.

그리워 그리워 사랑 그리워
해지고 밤되면 별을 헤면서 헤면서
돌아올 이 날을 기다려나니



단장 정찬희 지휘 정치용 연출 유희문 음악코치 이소영 합창지휘 윤의중 안무 김효분 기획총괄 정인숙



춘향 Sop. 이윤경 춘향 Sop. 이세진 몽룡 Ten. 신현욱 몽룡 Ten. 강신모 사또 Bar. 김관현 사또 Bar. 이태영 월매 M sop. 이수미



월매 M sop. 이은선 방자 Ten. 송원석 방자 Ten. 김정권 향단 Sop. 한인숙 향단 Sop. 구현진 운봉/옥서명 Bass 강창래

민족음악 그 영혼의 소리들

한국의 차이코프스키,
2012 이상근 국제음악제 프리뷰

작곡가 이상근 선생은 20세기 경남 진주가 낳은 뛰어난 클래식 작곡가로서,
한국의 현대음악을 열정적으로 개척하였으며 한국음악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국의 차이코프스키, 영남 음악의 대부로 칭하고 있는 이상근 선생을 기리는
2012 이상근 국제음악제가 오는 11월 2일부터 경남과학기술대에서 열린다.
"민족음악-그 영혼의 소리들" 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제는 한국적이면서 세계보편적인
음악을 꿈꾸었던 선생의 작품 「조우」에 착안하여 각 나라의 민족음악을 다루게 된다.
본 공연 외 부대행사로 진주 일대에서 공군교육사령부군악대 등의 퍼레이드 공연은 물론
다양한 계층이 함께 만들어 가는 음악회 프린지 공연도 풍성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이 행사는 메세나 결연을 맺은 장생도라지의 후원으로 이루어진다.

2012 LEE SANG GEU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2012 이상근 국제음악제 공연일정 안내 PROGRAM

구분	공연명 (행사명)	일시 및 장소	행 사 내 용
홍보 음악회	창작 국악의 향연 01	11. 1(목) 19:00 부산국악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음악(국악)의 현 주소를 알 수 있는 창작 음악회 ● 연주곡 : 국악 관현악곡 「고구려의 혼」, 가야금 협주곡 「절영의 전설」, 국악 관현악 「아리랑 환상곡」, 사물놀이와 국악 관현악을 위한 ● 출연 :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김덕수패 사물놀이 등
학술 연구	이상근 학술대회	11. 2(금) 13:00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관 소강당(1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국내외 음악학자 ● 기한 : 10, 18한 ● 심사 : 심사위원회 5명 ·심사기준 : 학술지 논문 게재 심사기준 및 한국 연구관 심사기준 ·다양한 주제 발표, 토론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 ·제출 : 신청서 및 논문 ·선발 : 5편 ● 주최 : 이상근기념사업회, 한국민족음악학회
개막 공연	스메타나&이상근 국민음악의 ※개막공연	11. 2(금) 19:00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나라의 민족(민족)아법을 주제로 한 국민주의 음악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작곡가의 유명한 작품을 연주 ● 연주곡 : 스메타나 교향시 「나의 조국」中 몰다우(Moldau), 뱃세라드(Vysehrad), 이상근 축전 서곡 「55432」(23분),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오주영 협연)(34분), 시벨리우스 교향시 「핀란드어」(8분) ● 출연 : TIF,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 : 박성완)
가족 음악회	학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콘서트	11. 3(토)14:00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의 진수, 학부모와 함께 듣는 즐거운 가족음악회 ● 연주 : 경남예고 오케스트라(지휘 : 심재화)
명연주가 시리즈 01	데니스 프로샤예프 (Denys Proshayev) 피아노 리사이틀	11. 3(토)19:00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속을 주제로 한 유명 작품 연주 리스트 헝가리 광시곡 제2번, 제6번, 쇼팽 마주르카 2번, 6번, 이상근 피아노 2중주곡 「한국의 꽃」, 「Korea Dances」 또는 한국 아악음계에 의한 전주곡 제7번, 플로네이즈 제3번 「군대」 ● 출연 : 독일 피아니스트 『데니스 프로샤예프 (Denys Proshayev) 』
명연주가 시리즈 02	오주영 바이올린 독주회	11. 4(일)19:00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기념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주가 낳은 바이올린 천재 오주영이 들려 주는 바이올린 명곡들 ·사라사테 : 피고이네르바이젠 등 ● 출연 :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
가족 음악회 02	가곡과 아리아의 밤	11. 9(금)19:00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명한 가곡과 아리아, 민요, 합창, 중창 등 연주 ● 출연 : 이종은, 하석배, 은형기, 조성환 등, 진주첼비콰이어(박홍규 지휘) ● 연주곡 : 하바네라 등 민족적인 어법이 담긴 유명 가곡, 아리아, 민요 연주 합창곡 연주 (한국의 꽃 등)
실내악의 향 연	국민주의 음악의 밤	11.10(토)19:00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헝가리의 민요를 자신의 음악소재로 이용, 명곡을 남긴 바르톡과 비발디의 신선하고 색채적인 작품을 연주 ● 연주곡 : 바르톡 Rumanian Fork Dances, 요한 시트라우스 Czardas 외 2곡(소프라노 협연), 이상근 목관악기와 현악합주를 위한 「한국의 꽃」, 시벨리우스 Andante Festivo(축전풍 안단테), 차이코프스키 Troika(삼무미차) 그리고 Holberg suite(홀베르크 모음곡), 피아졸라 리베르탱고 또는 사계 ● 출연 : 프리마 프로뮤지카 앙상블(지휘 : 양진모)
창작 국악의 향연 02	우리 국악의 심금	11.11(일) 19:00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악계를 대표하는 작곡가와 연주가를 통해 한국음악의 현 주소를 알 수 있는 음악회 ● 연주곡 : 국악 관현악곡 「고구려의 혼」 (전자바이올린 협연 : 김권식) 가야금 협주곡 「절영의 전설」 (강봉천 곡), 국악 관현악 「아리랑 환상곡」 (최성환 곡) 사물놀이와 국악 관현악을 위한 「신모듬」 (박범훈 곡) ● 출연 : 전자 바이올린 김권식, 가야금 박남주, 김덕수패 사물놀이,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지휘 : 홍희철)

LEE SANG GEUN INTERNATIONAL

LEE SANG GEUN
1922. 1. 10 ~ 2000. 11. 21

GYEONGNAM MECENAT IN CULTURE

경남 메세나와

함께 하는

문화산책

01 제7회 인산가곡제 가을을 알리는 숲속음악회

국내 유일의 숲속가곡제인 인산가곡제가 오는 9월 1일 오후 7시 30분 경상남도 함양에 있는 신라 최치원선생이 조성한 천년의 숲 상림 다별당 잔디마당에서 열린다. 인산가곡제는 죽염 발명가인 인산 김일훈 선생의 활인구세의 정신을 기려 2005년부터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열고 있으며 올해로 7회째다. 올해 참석하는 성악가는 소프라노 김수연, 테너 신동호,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이정원, 바리톤 우주호 등이 출연하며 협연은 메세나 결연단체인 김해신포니에타가 맡는다.

일시 2012년 9월 1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경남 함양 상림공원 다별당
문의 055-964-0277 www.hamyang.com



02 제17회 김달진문학제 우리시대의 희망, 우리 역사의 힘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문학제로 인정받는 김달진문학제가 오는 9월에 개최된다. <김달진문학제>는 김달진 시인의 문학적 세계를 매개로 지역문학의 뿌리를 찾고, 젊은 문인들의 용기를 끌어내어 창작 분위기를 쇄신시키고 더불어 활발한 문학 연구 활동과 비평 작업의 활성화로 잇는 상호교역할 할 것이다. 특히, 전야제, 도서전시회, 백일장, 문학심포지엄, 생가방문 등으로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지역문학은 물론이고, 우리 문학의 토양을 살찌우는 특색있는 문화 행사가 될 것이다.

일시 2012년 9월 8일~9일
장소 창원시 진해구민회관 대공연장 및 일원
문의 055-547-2623 daljin.or.kr



문화나눔으로 희망을 띄우다

01 찾아가는 메세나

지난 12월 창원시 북면소재 노인요양시설인 창원성심원에서 송년음악회를 열어 어르신들과 음악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남챔버소사이어티가 기획한 이날 공연은 클래식, 성악, 타악,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경쾌한 음악들로 꾸며, 공연이 진행된 2시간 동안 공연자와 관객 모두 하나가 되어 신바람 나는 하루를 보냈다.

02 즐거운 나눔티켓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경남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창원성산아트홀에서 공연을 관람하였다. 이날 관람한 공연은 경남의 어린이들과 음악인들로 구성된 경남리틀예술단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 아름다운 음악들과 더불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어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었다.



2012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대상 기업 및

예술 단체

현황

(2012.08.10)

대기업 결연

No.	기업명	대표자	단체	대표자	결연
01	경남은행	은행장 박영빈	경남오페라단	단장 정찬희	재결연
02			고성오광대보존회	회장 이윤석	재결연
03			(사)이병주기념사업회	공동대표 정구영, 김윤식	재결연
04			극단 객석과무대	대표 문중근	신규
05			다별청소년관악단	단장 오일창	신규
06			유라시안필하모닉오케스트라	대표 김난새	신규
07			통영꽃칠미술관	관장 김성수	신규
08			(사)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회장 이종일	신규
09	STX조선해양(주)	대표이사 신상호	창원안젤루스소년소녀합창단	단장 지연숙	재결연
10			경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이사장 정태기	재결연
11			대산미술관	관장 김철수	재결연
12	무림페이퍼(주)	대표이사 김인중	진주첼버오케스트라	대표 심재화	재결연
13			극단현장	대표 정대균	신규

중소기업 매칭펀드 결연

No.	기업명	대표자	단체	대표자	결연
14	경남스탈(주)	대표이사 최종경	경남재즈오케스트라	단장 박행렬	재결연
15			동서미술상운영위원회	회장 송인식	재결연
16	신화철강(주)	대표이사 정현숙	극단미소	대표 김상규	재결연
17			트루베르첼버오케스트라	대표 남미화	재결연
18	경남자동차판매(주)	대표이사 이인호	경남첼버썸머아이티	대표 차문호	재결연
19			통영꽃칠미술관	관장 김성수	재결연
20	(주)문애드테크	대표이사 윤수일	경남불교미술인협회	회장 윤판기	재결연
21	경남에너지(주)	대표이사 정연욱	극단 객석과무대	대표 문중근	재결연
22	고려철강(주)	대표이사 한철수	가곡전수관	관장 조순자	재결연
23	문음수치과의원	원장 문윤수	경남발레단	단장 이동근	재결연
24	(주)복성산업	대표이사 박환병	풍류충무극소	대표 강동욱	재결연
25	삼남굿모닝내과병원	원장 이창열	경남영화협회	회장 정종연	재결연
26	신대양(주)	대표이사 박종춘	예술단 '樂락'	단장 송기혁	재결연
27	원광건설(주)	대표이사 조성제	경남사진학술연구회	원장 김관수	재결연
28	(주)중앙금속	대표이사 정영건	한국문자문명연구회	회장 김중원	재결연
29	창원서울이비인후과병원	대표원장 유화경	대안공간 마루	대표 최경애	재결연
30	(의)칭이의료재단	이사장 최재영	경남프리오양실	대표 조미숙	재결연
31	(주)포스텍 진해사업장	대표이사 조옥성	진해 미술협회	회장 황국현	재결연
32	(주)현대단조	대표이사 마평수	경남교원필하모닉	단장 우영자	재결연
33	(주)화영	대표이사 이홍원	충공간노는	단장 김금희	재결연
34	(주)금술개발	대표이사 윤정한	오리엔탈퍼포먼스공연단	단장 문영화	재결연
35	일립나노텍(주)	회장 박효찬	경남관악단	단장 김정호	재결연
36	PS엔터테인먼트	대표 최민선	극단이루마	단장 이정우	재결연
37	경원벤티크(주)	대표이사 공경열	장유여성합창단	단장 이귀련	재결연
38	(주)고구려	대표이사 임재현	경남국악관현악단 휴	단장 송철민	재결연
39	(주)한국자연환경	대표이사 강동규	(사)다별문화	대표 전진석	재결연
40	피케이벨브(주)	대표이사 박현근	창원극들	대표 전민규	재결연
41	화성지앤아이(주)	대표이사 김원철	창원시청소년교향악단	단장 김호준	재결연
42	산골농장	대표 이상호	산정민속보존회	회장 반해균	재결연
43	윤한의원	원장 윤진구	불모산영신재보존회	회장 김차식	재결연
44	(유)상화도장개발	대표이사 이년호	대한크로마하프연주협회	회장 이미애	재결연
45	경남신문사	회장 김순규	3.15뮤직컴퍼니오케스트라	대표 심진환	재결연
46	(주)센트랄	회장 강태룡	창원국악관현악단	단장 김연욱	신규
47	우수 AMS(주)	회장 전종인	경남여류문화회	회장 김진희	신규
48	인산죽염촌(주)	대표이사 최은아	김해신문노예타	대표 이진덕	신규
49	the 큰병원	대표원장 김경범	마산미술협회	회장 정의영	재결연
50			창원아시아미술제	회장 한동식	재결연
51			아르가첼버오케스트라	단장 손봉준	신규
52	(주)경한코리아	회장 이상연	숫대패사물놀이예술단	단장 오민재	재결연
53			경남리틀예술단	단장 권안나	신규
54	삼원테크(주)	대표이사 이택우	문화두레 어차구니	대표 손동현	재결연
55			진해필하모닉오케스트라	대표 정유연	신규
56	(주)동구기업	대표이사 류병현	합천국악예술단 '토짜비'	회장 백중권	신규
57			울암여행	대표 박경복	신규
58	(주)세노텍	대표이사 김억근	코리아드림신포니에타	대표 박현영	신규
59	한국제강(주)	대표이사 허종식	대한시조협회합인군지회	회장 김재순	신규
60	비에이치아이(주)	대표이사 우종인	함안군여성합창단	단장 박문자	신규
61	동과의료재단	이사장 이종삼	굿뉴스합창단	대표 허미영	신규
62	(주)좋은데이사회공헌재단	이사장 최재호	C.V.N.U원드오케스트라	대표 서정두	신규
63	(주)한국아나세	대표이사 우영준	경남원드오케스트라	대표 박민호	신규
64	(주)상우	대표이사 이상길	창원합창연합회	대표 권안나	재결연
65			창원시그린여성합창단	단무장 손미은	신규
66	(주)이우	회장 최방철	극단미산	대표 이상용	신규
67	(주)유림철강	대표이사 심재룡	대한민족무예총연합회	대표 노정인	신규
68	미즈맘여성병원	대표원장 이덕희	창원미술협회	지회장 이경태	신규
69	(주)세양정공	대표이사 유병현	아시아인극협회	대표 한태수	신규
70			장순항무용단	대표 장순항	신규
71	(주)장생도라지	대표이사 이영춘	이성근기념사업회	대표 리영희	재결연
72	인산죽염촌(주)	대표이사 최은아	경남시조인협회	대표 하순희	신규
73	(주)영창기업	대표이사 이강대	연음예술단	대표 이호진	신규
74	(주)원웅정공	대표이사 한장규	동막문화예술연구회	대표 박금숙	신규

경남메세나협의회 사업소개

GYEONGNAM MECENAT

기업과 예술의 만남이 행복한 경남을 꽃피웁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사업 _ ARTS & BUSINESS

기업과 예술단체가 1:1 결연을 맺고, 사회공헌, 마케팅, 경영전략 차원에서 상호 협력하여 기업은 경쟁력을 제고하고, 예술단체는 안정된 창작활동을 보장받음으로써 서로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기업은 예술단체에 자금, 사내 공간, 티켓 구매, 직원 자원봉사 등을 지원하고, 예술단체는 기업에 사내공연 및 직원 예술교육, 공연초대, 기업 홍보 등 기업의 창조적 문화경영 활동을 지원합니다.

경남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중소기업이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경상남도에서 해당 예술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는 MATCHING-GRANT 프로그램

회원사 협력사업 _ COOPERATION

찾아가는 공연 : 기업 행사 시 직원과 고객을 위해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합니다.	예술기행 : 회원사 직원 및 가족에게 지역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술동아리 지원 : 사내 예술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합니다.	문화공감 : 회원사 대표 및 담당에게 도내문화예술회관 공연관람 티켓을 제공합니다.
미술작품 대여 : 도내 작가들의 미술작품을 대여하여 사내에 전시해드립니다.	지정기탁 :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각종 지원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드립니다.

문화 나눔사업 _ SHARING ART

찾아가는 메세나 :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우리 이웃에 찾아가 다양한 문화공연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티켓 : 도내 복지시설 어린이에게 즐겁고 유익한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을 돕고 있습니다.

연구 및 홍보사업 _ DEVELOPMENT

<경남메세나> 발간 : 도내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홍보하고, 지역 문화소식을 알리고자 연 3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영세미나 및 경남메세나포럼 개최 : 도내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문화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영 활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문화경영 도서 보급 : 문화경영 관련 우수 도서를 회원사에 배부해드립니다. 예술경영 아카데미, 결연예술단체 역량강화 워크샵 : 도내 예술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최하여 예술경영 능력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돕습니다.

경남메세나대회 _ GYEONGNAM MECENAT AWARDS

경남메세나대회 개최 : 메세나 활동으로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한 기업과 문화예술계가 만나는 축제의 장입니다. 경남메세나상 시행 : 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 등을 발굴하여 공로를 시상합니다.

